

이와미 은광과 그 문화적 경관

2007년 이와미 은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을 때,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가 평가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6세기부터 17세기 초기에 걸친 기간 동안 이 은광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은 생산의 고고학적 증거가 지역 일대에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은광 자체는 물론, 광산 마을에서 수송로와 항구까지 연결된 주변 유구가 일체화된 구조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미의 은과 세계 무역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된 은은 150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은광을 관리했던 각 다이묘 가문들은 해외와의 교역에 이 은을 사용했습니다. 그 무렵 막 은본위 경제체제로 이행하던 명나라는 북서쪽에서 침략해 온 몽골군에 대항할 방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의 통화, 즉 은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 은은 일본에서 직접 중국으로 흘러갔지만 이 무역의 주도권은 곧 유럽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카오에 거점을 둔 포르투갈 상인들이 명나라에서 생산된 비단과 일본에서 사들인 은을 교환했던 것입니다. 이 교역 패턴은 포르투갈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을 ‘은의 나라’라고 부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미의 은은 포르투갈의 해양 제국 전역에서 유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500년대 후반 전 세계에서 거래된 은의 총량 중 적어도 10%는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교역은 에도 시대(1603~1867)에 도쿠가와 막부가 쇄국(외국과의 접촉을 제한함) 정책을 실시하면서 표준화된 은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1600년대 초기까지 크게 융성했습니다.

전통적인 은 생산

이와미 은광 주변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은을 생산했던 물리적 흔적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미 은광은 같은 지역에서 은이 발견된 1527년부터 1923년까지 운영되었지만, 채굴 장비와 기법이 공업화된 것은 일본의 쇄국 정책이 종료된 이후인 1800년대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와미 은광에서는 전통적인 채굴과 제련, 정련의 고고학적 증거가 옛날 모습 그대로의 상태로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갱도와 생산 설비, 마을 일부에서 이루어진 발굴 조사를 통해 당시 사용된 기술이나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숲으로 덮힌 센노산의 경사면이나 그 주변의 계곡에는 이 외에도 더 많은 유적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상

이와미 은광과 그와 관련된 항구, 도로, 성 등 요새, 관리 시설, 주거 구역, 종교 유적은 유기적으로 일체화된 구조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갱로나 수직갱 일부는 안으로 직접 들어가볼 수 있으며 은광에서 일본해로 이어지는 도로도 실제로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모리 마을에서는 이 지역에서 부를 쌓은 상인 가문들의 옛 주택도 직접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화된 역사적 유적은 중세부터 1920년대까지 광산을 중심으로 성립된 커뮤니티의 일대기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들 유적은 시간이 흐르면서 광산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각 시대의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광산을 중심으로 한 고도로 전문화된 경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와미 은광에서 은을 채굴한 400년 동안 그 운영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